

# 전문 역사연구서보다 대중저술에 치우쳐

2001년 역사학계의 성과와 과제

송호정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21세기 첫해를 마감하며 한국사학계를 돌아보면, 시대적 전환에 걸맞은 전문적인 연구성과보다는 일반 대중을 겨냥한 대중서 출판이 두드러졌다는 생각이 든다.

## TV 사극과 대중적 역사픽션이 대세 이뤘

TV에서 사극물이 범람하고 역사스페셜에서 방영된 내용을 역사적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에게는, 어찌 보면 《태조왕건(전10권)》(이환경, 밀알), 《여인천하(전3권)》(박종화, 범우사), 《명성황후(전3권)》(강신재, 소담출판사) 같은 역사관련 저작물이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1~3)》(조정래, 해냄), 《상도(전5권)》(최인호, 여백) 같은 역사소설 또한 역사가에 의한 역사 대중화 작업을 대신해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픽션이 가미된 작품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역사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출판 경향 속에서도 유흥준의 《화인열전(전2권)》(역사비평사) 같은 저작은 한국사를 문화사와 미술사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사 대중화의 방향에서 출판물이 쏟아진 것에 비하면 전문 역사 연구자에 의한 저술은 주목할 만한 것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보화·디지털 시대라는 사회적 특성과 중국 바람 등의 영향으로 한국사를 동아시아와 세계사 질서 속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고 대개 번역서가 주류를 이루지만, 정수일의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 같은 책은 한국사를 세계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보기 드문 역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우리 학계에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 가운데 하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활사 연구의 유행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요즘처럼 우리의 전통을 알려는 열망이 드높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기존의 역사책은 주로 정치사와 경제사에 국한돼 기껏해야 과거의 고급 문화를 맛보기로 보여줄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포괄적 역사인 생활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기원과 전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진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비판에 집중돼

생활사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저술된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사계절)와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정연식, 청년사) 등은 옛집의 기와 하나, 옛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생활사에는 엄밀한 고증, 생생한 복원도, 풍부한 유적·유물 자료가 들어가 있어 일반 대중도 우리 역사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만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 하나 주목되는 연구경향이라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제의 강점과 역사왜곡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한일관계사를 새롭게 정리한 성과물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최근 발간된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은 누락시키고 일본사를 우월하고 발전된 것으로 보는 역사관에 입각해 서술돼 있다. 책 전면에 흐르는 역사인식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후소샤 교과서 내용은 물론 그 동안 일본학계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를 비판하는 성과물(《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역사비평사))을 내고, 이를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지속돼야 할 중요한 성과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 교과서의 문제와 역사교육을 반성하며 우리 국사교육의 중요성과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김한중, 책세상)) 등을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연구성과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마니아들을 겨냥한 출판물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여기에 전문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자들이 대중서에 관심을 쏟고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내년에는 한국사 연구물들이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송호정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한국생활사박물관》 등이 있다.